

암이  
암을 이긴다

암생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안내서 ①

## 폐암편

발 행 \_ 대구·경북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발 행 일 \_ 2020년 10월  
출 처 \_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자문/검수 \_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호흡기내과 이신엽교수  
자 문 \_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흉부외과 이응배교수  
편 집 \_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담간호사 강주미  
문의전화 \_ 053) 200-3561  
팩스번호 \_ 053) 200-3569  
주 소 \_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동 2층

암생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안내서  
①  
**폐암편**

암 치료 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과 교육(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LK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구경북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친구추가하세요.



대구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인사말

이 책은 암 진단 후 힘든 치료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폐암생존자를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겪었던 폐암의 재발이나 이차암 발생의 감소를 위하여 어떠한 건강생활 습관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생활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폐암생존자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장 이 신 업

※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이 책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국가암정보센터의 '내가 알고 싶은 암-폐암'에서 내용을 일부 뽑아 대구·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암생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안내서 ① 폐암편

- I. 폐암에 대한 이해.....5
  - 1. 폐란?.....5
  - 2. 정의와 종류.....6
  - 3. 발병요인.....6
  - 4. 증상.....7
  - 5. 진단.....8
  - 6. 치료.....8
  - 7. 재발 및 전이.....9
  - 8. 치료 부작용.....9
- II. 폐암 치료 후 건강한 일상을 위한 생활 지침.....11
  - 1. 일상생활 관리.....11
  - 2. 식생활 관리.....12
- Q&A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의사의 답변).....18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란?

암치료가 끝난 분 즉, **암생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자기관리능력 향상 및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여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기능복귀**를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가암관리 정책 사업기관입니다.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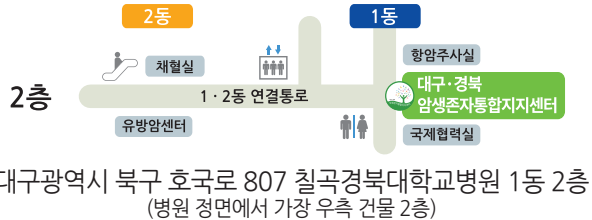
적극적인 암치료(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가 끝난 분  
(5년 완치자 아니어도 됨)

\*사업참여 제외 대상 : 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의 암 치료 중인 분과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인 분

비 용

프로그램 이용 및 교육 상담 **무료**

오시는 길



문의

053)200-3561



## I 폐암에 대한 이해

### 1. 폐란?

#### 1) 위치

폐는 심장과 함께 흉강(胸腔), 즉 **가슴 안을 채우고 있는 장기**입니다. 가슴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의 대부분을 좌우 두 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상·중·하 세 개의 폐엽으로, 왼쪽 폐는 상·하 두 개의 폐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2) 기능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모세혈관을 지나는 피가 체내에서 모아 운반해 온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 다시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인 **호흡작용을 통한 가스 교환**입니다. 기관지의 공기 흐름이 좋지 않거나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가스 교환 외에도 폐는 호흡을 통해 열을 발산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 몸 속에 있는 산(酸)과 염기(鹽基)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 2. 정의와 종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非小細胞)폐암**과 **소세포(小細胞)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가장 흔함),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 나머진 소세포폐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縱隔洞, 양쪽 폐 사이의 공간으로 심장, 기관, 식도, 대동맥 등이 위치함)으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발병요인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폐암 발생의 약 70%가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흡연 외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간접 흡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역시 폐암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었던 라돈(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석면슬레이트 등 건물자재 중 존재)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 역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폐암의 발병과 연관되며,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유전적 요인**도 폐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4. 증상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객담(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관지 혹은 폐와 연관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소적으로 암종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

### 2)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

- 후두신경 침범 : 쉼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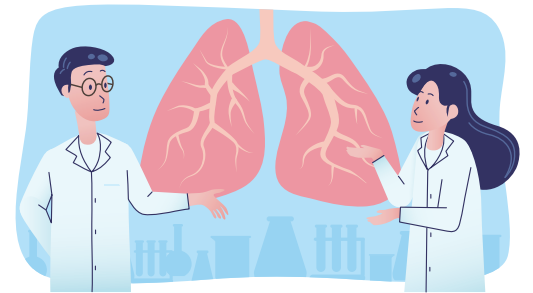
- 식도 침범: 연하곤란(삼키기가 어려움), 상대정맥증후군

### 3) 전이에 의해 생기는 증상

뇌 전이에 따른 뇌기능 장애와 두통, 구토, 뼈 전이에 따른 뼈의 통증 등

### 4)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 생기는 증상

식욕부진, 발열, 이상 호르몬 생성



## 5. 진단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는 **흉부 단순 X-선 촬영**이나 **전산화단층촬영(CT)**를 통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영상으로 확인하며, 객담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Bronchoscopy),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EBUS), 경피적 침생검(침흡인세포 검사)등으로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현미경으로 확진하며 뼈스캔(Bone scan),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scan),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폐암의 진행 정도(병기)를 추정합니다.

## 6. 치료

폐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이며 병기, 개개인의 전신 상태, 치료 적응도 등에 따라 치료법의 선택과 조합이 달라집니다.

### 1) 비소세포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 2기와 3기 일부에서는 수술을 통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항암약물과 방사선치료 시행 후에 수술하기도 하고 수술 후 보조적 항암약물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3기 중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이상의 3기는 완치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병용 치료 또는 항암·방사선 병용 치료 후 면역항암제를 추가하는 치료를 합니다.
- 4기는 완화목적의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합니다.

### 2) 소세포암

소세포암은 제한병기, 확장병기로 나누어지며 **비세포암과는 다르게 항암약물치료가 치료의 근간**입니다. 제한 병기에는 완치목적의 항암·방사선 병용치료를, 확장 병기에는 완화목적의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일부 제한병기에서는 폐절제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 및 방사선치료로 폐암이 호전된 경우에 뇌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적 뇌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 7. 재발 및 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55~80%가 처음 진단 당시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국소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의 전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의 20~50%가 재발을 보입니다. 흔히 전이되는 곳은 뇌, 뼈, 간, 부신과 다른 쪽 폐입니다

## 8. 치료 부작용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모두 나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수술 후 폐렴 등의 합병증과, 가슴과 팔의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 등이며, 항암약물치료는 오심과 구토, 설사, 변비, 탈모, 빈혈 등을, 방사선치료는 피부염, 심신 피로, 식욕 부진, 식도염, 방사선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1) 수술치료 부작용

폐암 수술은 흉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폐의 한 부분을 외과적으로 떼어 내는 것인 만큼, 수술 후 **가슴과 팔에 통증**이 오고 **숨이 차는 것**이 일반적 증상입니다. 폐 기능이 감소하는 정도는 절제 범위와 남은 부분의 기능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 후의 잔존 폐 기능을 수술 전에 미리 예측하고 수술을 결정하므로 설사 상당한 범위를 절제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잘 적응하면 별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 기능의 상대적인 저하로 인한 폐나 심장의 합병증
- 상처 부위 감염
- 흉막강에 고름이 고이는 농흉
- 신체 장기들의 기능 부전
- 쉼 목소리

## 2)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

폐암의 항암약물치료를 위한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들까지 손상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분열과 증식의 속도가 빠른 골수세포, 구강과 위장관의 상피세포, 머리카락 세포, 손발톱 세포, 생식세포 등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골수의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손상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오심(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계 문제와 탈모, 주사 맞은 부위의 피부 손상, 말초신경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폐암의 치료에 도입된 면역항암제는 전통적인 세포독성항암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몸이 힘든 정도는 덜하지만 특유의 면역기전의 부작용으로 피부발진, 폐, 대장, 간 등의 장기 염증, 갑상선 등의 내분비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일반적으로 폐암의 방사선치료는 피부염, 조사 부위와 그 주변의 탈모, 심신 피로, 식욕부진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방사선치료에 의해서는 식도염과 방사선폐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도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부종 등의 식도염 증세로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지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지지만, 대개 치료 후 보름 쯤 지나면 완화됩니다. 방사선폐렴은 방사선을 받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간혹 폐의 손상과 섬유화로 이어져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 II 폐암 치료 후 건강한 일상을 위한 생활 지침

## 1. 일상생활 관리

폐 절제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기관지 분비물이 고이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이나 기침을 자주하고 가벼운 운동도** 함으로써 남아 있는 폐의 기능을 살리고 수술 부위에 공기와 액체가 들어차지 않도록 합니다.

>>> 폐 절제 후 운동 및 활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미한 통증은 경구 진통제나 국소 찜질로 완화합니다.
- 2)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 물질들(매연을 비롯한 각종 공해 물질, 먼지, 헤어스프레이, 자극성 향기 등)을 피합니다.
- 3) 간접 흡연도 가능한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가능하면 금연 구역을 이용합니다.
- 4) 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심호흡 운동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호흡하는 법과 체내 분비물 배출을 돕는 기침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아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가슴부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폐색전증, 폐부종, 기흉과 같은 급성 폐질환이 있을 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5) 규칙적으로 짧게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으로 시작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합니다.

<수술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일상생활 동작>

- 수술한 쪽 어깨 돌리기
-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리기
- 한 손으로 반대편 귀 잡기, 빗질하기 등

6) 폐암 수술 직후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운동 단계를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아침/저녁 일정하게 30분~1시간씩 '가볍게 걷기'를 하고,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즐기는 어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를 완료하지 않으신 분이나 항암약물치료이나 방사선 치료 중이신 분은 가벼운 산책을 하되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 2. 식생활 관리

폐암은 대체로 음식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생활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고, 본인의 평소 취향대로 드셔도 됩니다. 식사는 조금씩 천천히 하고, 식욕 증진을 위해 산책이나 걷기 등 가볍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환자에게는 과일이나 채소가 좋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채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맛에 맞춰 다양하게 먹는 편이 좋습니다.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하면 체내의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서 신체 회복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며, 수술이나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에 따르는 부작용도 최소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영양소들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식단이 좋습니다.

>>> 치료 후의 식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매끼 다섯 가지 식품군(예: 곡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유제품류)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매끼 곡류를 주식으로 2~3종류의 채소류(예: 생채, 나물,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콩류를 1~2종류 섭취합니다.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2)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양성분(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식이섬유 등)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① 항산화영양소(antioxidant nutrients)포함 식품의 종류와 기능

영양성분	식품 종류	체내 기능
비타민 C	채소(토마토, 풋고추, 브로콜리 등), 과일(감귤류, 딸기, 키위 등), 곡류	상처회복 및 세포 손상을 방지함
비타민 E	견과류(아몬드, 호두, 땅콩 등), 식용유(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고구마 등	유방암 및 폐암 등을 예방함
베타카로틴	녹황색채소(고구마, 당근, 늙은 호박, 단호박, 망고, 시금치) 및 과일류(살구, 감귤류, 단감 등)	노화지연, 폐기능 증진 및 항암효과가 있음
비타민 A	간, 우유, 계란 노른자	시력유지, 정상세포 발달 증진, 항산화작용이 있음
루테인	녹색채소류 (시금치, 케일 등)	시각퇴화속도 지연, 암 위험도 감소시킴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살구, 포도 등	전립선암과 심장병을 예방함
셀레늄	쌀, 밀가루, 닭, 생선 등	암세포가 종양으로 발전되는 것을 저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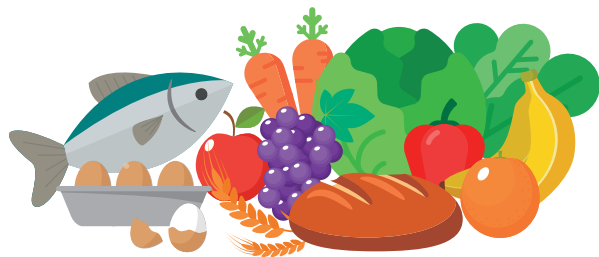
② 식물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포함 식품의 종류와 기능

영양성분	식품 종류	체내 기능	
플라보노이드	퀘세틴	사과, 배, 체리, 포도, 양파, 케일, 아욱, 브로콜리, 잎상추, 마늘, 녹차, 적포도주	뇌암과 기관지암의 성장 저지 및 오염물질과 흡연으로부터 폐 보호의 작용이 있음
	카테킨	녹차, 포도	항암 효과가 있음
페놀 화합물 (폴리페놀)	자두, 딸기, 적포도, 키위, 건포도, 토마토, 현미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함	
이소플라본	대두,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감자, 옥수수, 땅콩, 멜론, 건포도 등	유방암 예방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골다공증 예방의 효과가 있음	
설폰라펜	배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순무 등	대장암 위험도를 감소시킴	
알릴화합물	마늘, 양파, 부추, 파 등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함	
리모넨	오렌지, 자몽, 귤, 레몬 등	폐 보호 및 암 예방 효과가 있음	
인돌	브로콜리, 양배추 등	유방암 예방, 발암물질 활성을 억제시킴	
리그난	아마씨, 해조류, 대두와 같은 건조된 콩류, 곡류의 겉질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음	
사포닌	마른 콩류, 전곡류 등	항암효과가 있음	



③ 식이섬유의 종류와 기능

영양성분	식품 종류	체내 기능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밀제품, 현미, 호밀, 쌀, 채소, 식물의 줄기, 밀겨	분변량 증가, 장 통과시간 단축 (발암물질이 장 세포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펙틴, 검 등	사과, 바나나, 감귤류, 보리, 귀리, 강낭콩	음식의 위장 통과 속도를 지연함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시킴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3)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많이 섭취합니다.

**잡곡류**는 복합 당질,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섬유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증가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의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암물질의 배설을 촉진시켜 암을 예방합니다.

4) 기름, 소금, 설탕, 술, 그리고 염장식품(젓갈) 등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특히 짠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켜 쉽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5) 고기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합니다.

이때 튀기는 요리법보다 **끓이거나 삶는 조리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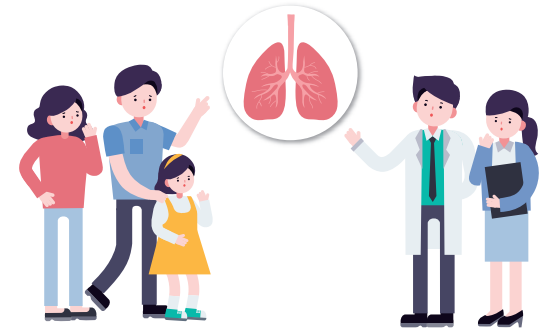
6) 탄 음식과 육가공품(소시지, 햄 등) 섭취를 제한합니다.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경우 암 유발을 촉진하는 발암물질이 육류나 생선 표면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섭취할 경우, 위암, 결장암, 췌장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발색제인 질산염은 폐암, 식도암, 위암, 간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섭취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 만약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식이에서 지방의 양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의사의 답변)



### Q 폐암 수술 후 공기 좋은 시골로 가거나 요양병원에서 푹 쉬는게 더 좋은가요?

A 경우에 따라 회복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충분하다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이전보다 건강 관리에 힘쓰고 무리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 Q 폐렴 예방접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게 더 좋은건지, 그리고 접종 시기는 수술 후 언제가 좋나요?

A 폐암을 비롯한 암환자는 **폐렴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담당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도록 하세요. 이미 폐렴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연령이나 기존에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대개 10월 중에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Q 비행기 안에는 공기가 희박하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해외 가도 되나요?

A 수술 받은 후 **한 달까지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이 시기가 지나고 수술 후 **잘 회복된 경우라면 장거리 비행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기저 폐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장거리 비행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Q 개흉술 후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수술 부위가 찢어찢어지기도 하고요, 기침을 할 때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A 흉강경이든 개흉이든 찢어지는 느낌 혹은 감각이 떨어지는 것 혹은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찢어진 정도 혹은 통증의 정도가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점차 빈도가 잦아지거나 강도가 강해진다면 담당의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Q 고향량 비타민제나 비타민 링커가 폐암 치료한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되나요?

A 비타민 치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들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모든 **폐암환자에 적용할 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 치료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암환자에게 항암치료를 처방하거나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들이 비타민치료를 흔히 처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다고 보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Q 생고기(육회), 생선회 등의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A 항암약물치료 준비 중이거나 항암치료 중인 경우 섭취를 금지 하여야 합니다. 그외 암치료 완료 후 일상 생활 중인 경우는 섭취가능하나 자제가 필요합니다.